

## 제3국의 원자력 시장 개척

### 동아건설산업(주)

#### 사업 계획 분야

**갑** 작스러운 IMF 한파 때문에 유독히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를 보낸 동아건설산업(주)는 원자력 산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지나간 어려움을 이겨낸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회사 사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인 울진 원자력 3·4호기 주설비 건설 공사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작년 8월 11일 거행된 울진 3호기 준공식 및 울진 5·6호기 기공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 및 관계 기관에서 도와 주신 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동아건설산업(주)는 원자력계의 일원으로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완성에 전사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에 대처하여 원자력 산업계의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해 새설계로써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4호기와 98년 8월 11일 착공한 울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그동안 적용해왔고 개선해왔던 신기술 또는 신공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 사업의 건설 공사 표준화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특히 울진 5·6호기 주설비 건설 공사는 3개사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한 계약 체결 공사로서, 대표사인 동아건설산업(주) 40.5%, 한국중공업(주) 39%, 삼성물산(주) 20.5%로 구성되어 있다.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품질 요건과 안전성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국내 최초로 3개사의 공동 수급체를 운영하여 본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효율적인 공사 관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최적의 시공 관리 체제 운영을 위한 3사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공 관리와 책임 시공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축적된 기술 및 공사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금년 내에 발주되는 북한 신포 지역의 원전(LWR 1,000MW)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97년 8월 19일 착수한 북한 경수로 원전 초기 현장 공사(P.W.C)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동아건설산업(주)는 국내 표준 원전 건설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도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비 분담에 의한 북한 경수로 원전 건설 사업의 추진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종래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초석이 될 수 있고, 현재 정부의 대북한 햇볕 정책의 기초에 부응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아시아 지역에서의 원전 사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지역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원전 건설 사업 분야의 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지점망을 통한 시장 개척의 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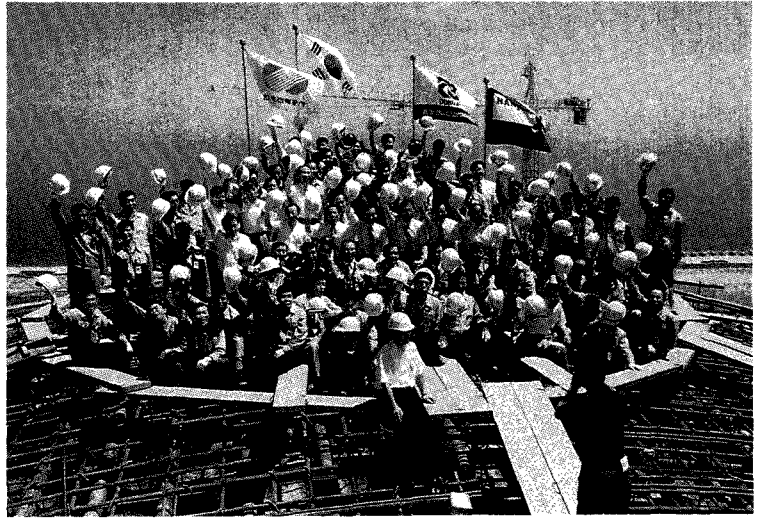
### 원자력계의 환경 여건 조성 참여

국민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자력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정부의 취지에 부응하여 많은 규제 제도가 폐지 또는 개선되어가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의 건설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 입지 부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복리 증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말 해제된 일부 원전 입지 지역 외에 현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울진 원전 주변에 원자력계의 일원으로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민간 차원의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는 끈끈한 인간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원자력 산업계에 대한 민심의 방향을 국가적 경제 이익과 사회 전반적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4호기와 98년 8월 11일 착공한 울진 5·6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그동안 적용해왔고 개선해왔던 신기술 또는 신공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 사업의 건설 공사 표준화를 이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향후 전망

동아건설산업(주)는 최근의 어려웠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3년 이내에 세계 우수 기업과 같은 부채 비을 유지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는 신경영 이념을 수립하여 착실히 진행해 나가며 21세기에는 세계적인 건설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가며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오랜 국내 원전의 건설 경험과 축적된 기술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를 달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시공 품질의 최적화, 발주처와 시공사의 정보 공유 활용 시스템의 개발 등을 통하여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현재 한국 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원전 건설 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설계

개선 및 시공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주)는 금년에 가시화될 대북 경수로 사업의 건설 계약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기 위하여 약 3년 동안 북한 경수로 추진 태스크 포스 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해 왔으며, 본 계약 후에는 당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공사의 성공적 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동반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아가고 있으며, 해외 유명 원전 건설 업체들과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제3국 진출에 준비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핵연료 폐기물 저장고 건설 기술에도 당사에서는 해외 우수 경험 업체들과 함께 유사 사례 연구 및 검토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바, 향후 우리 나라의 폐기물 저장고 건설시에도 동아건설산업(주)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